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정기예매 할인 서비스

full은 최고의 상품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편집의 공간입니다



전단지 | 카대 | 시공명 | 명함 | 소지권
장기 간행물 | 배너 | 전단지 등 가능 인쇄물

T. 721-9922, F. 721-9921

제7호 | 발행일 : 2007. 2. 21 회장 : 김종균 | 발행·편집인 : 김광란 | 기사제보·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www.newsday.or.kr



[파워 인터뷰]

희망은 꿈꾸는 자의 몫 회원들 권익실현에 박차

- [성남은 지금] 성남시빙상경기연맹,공금횡령 의혹
- [성남24시] 성남,이대엽호 이대로 좌초 하는가
- [지역포커스] 분당지역 민생치안 '사각지대'
- [테카가 있는 주말산책] 온천 여행 어때요?
- [문화광장] 성남일보 주최 '명사 초청의 밤' 성료
- [차 한잔] 김건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인터넷 주소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일보

snilbo.co.kr

경안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 '시동'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 조성 용역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9일 오후 3시 경기개발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 399천평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총괄을 맡은 변우일 박사는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인한 수량이 줄어 갈수기의 경우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개별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TN(총질소), TP(총인)의 농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방류수 수질기준 TP(인)을 2mg/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스위스 방류수 수질기준 0.2mg/ℓ의 10배나 높다. 특히 개별오수처리시설의 N(질소), P(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어 팔당상수원 수질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경안천 하구에 대규모 생태습지를 조성해 경안천 본류 유량 전체를 습지에 의한 자연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보고서 퇴출면 정지리를 중심으로 상류지역, 정지리 구간, 하류구간으로 나누어 상류지역은 광주시 지월

안 천 고 수 부 지 95,600㎡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재처리시 BOD 9.37mg/ℓ → 2.33mg/ℓ 까지 삭감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부근 고수부지 및 서하보 고수부지 153,300㎡도 상류지역에 포함해 생태습지 조성안과 기 조성된 습지 인근지역 683,700㎡에도 생태습지를 조성해 경안천 본류 263,029㎡/1일 정화처리를 한다.



◆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 장면

포함시 총 습지면적이 1,320,400㎡로 경안천 평수량 525,312㎡/1일의 90.3%인 490,362㎡/1일 처리시 예상 처리효율은 BOD 75.2%, SS 78.7%, TN62.7%, TP58.4%까지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안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 '시동'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 조성 용역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9일 오후 3시 경기개발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 399천평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방류수 수질기준 TP(인)을 2mg/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스위스 방류수 수질기준 0.2mg/ℓ의 10배나 높다. 특히 개별오수처리시설의 N(질소), P(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어 팔당상수원 수질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경안천 하구에

안 천 고 수 부 지 95,600㎡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재처리시 BOD 9.37mg/ℓ → 2.33mg/ℓ 까지 삭감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 장면

이대엽시장 시장직 유지 힘들듯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심 결과에 촉각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 시장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박희승은 지난 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시장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이 시장에 벌금 200만원을, 이 시장의 조카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엽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엄하게 다스려야 규정돼 있다"면서 "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돼지고기 편육 제공에 대해 "7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이지만 양이 100kg로 양이 너무 많아 처벌 대상이 되며 선

거 사무소 개소식장은 이대엽 피고인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육 제공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시의회 격려금 전달과 관련 선거를 많이 치러 본 피고인이 강화된 법에 따라 선거법 집행 여부를 알았으리라 보며, 촉구부 우승 축하 지원금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행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2심 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최종 당선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송현주기자

성남, 이대엽호 이대로 좌초 하는가?

시장선거 후보군 '잔걸음'...지역정가 '술렁술렁'

이대엽 성남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인 200만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선고되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지난 민선 3기 취임하자마자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년간을 선거법으로 고생한 바 있는 이대엽 시장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보다 강도가 높다.

민선 3기때는 1심에서 검찰이 200만원을 구형하고 법원이 100만원을 선고, 2심에서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으나, 민선 4기 선거법 위반은 선거법과 관련해 제반이고,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하고 1심 재판부가 20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 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대엽 시장의 정치술로 볼때 2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최근 재판부 분위기로 볼때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선거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 나왔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시장선거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군과 한나라당 경선 탈락 후보군들의 모습이 여러차례 각종 행사장에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가 "단순 행사 참여"라고 말하지만 그발을 끈이 꼰대로 돈을 사람들은 드물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대엽 시장의 1심 판결에

지역정가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쉬운하다. 수경중원구 주민들은 이대엽 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기존시가지보다 분당구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원구 상대원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여)씨는 "한나라당을 위해 선거운동도 했지만 이대엽 시장은 분당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는것을 볼때 이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 입장이 분당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인다.

반면 분당구 주민들은 또 다시 선거를 통해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이대엽 시장이 계속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2심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 2심 판결을 비추어 볼때 20-30%를 떨어뜨린다 해도 시장직 유지는 힘들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과, 정치술과 권운이 뛰어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의 돌파 능력을 볼때 당선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2심 고등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향후 이대엽 시장의 대처하는 모습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6월 이전에 최종 판결은 나겠지만 100만 성남시민은 민선 4기 이대엽 호가 여가서 주저 않을 것인지 나머지 임기를 채울 것인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익호기자

(3면 기사 계속) 이번이 이룬 꿈은 個人的的으로나 地域的으로 여러 意味가 內包되어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내 33개 藝術團體 40,000여 藝術人들의 首長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의미보다는 지난16대 會長選舉에서 7표차로 분패했다. 그런데 이번17대 선거에서 7표차로 이기면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신기하고 의미가 커 경기예술사의 한쪽을 수놓게 됐다.

또 無效處理가 된 1표도 남궁원 표로 보는 시각이 많아 非公式的으로는 지난 16대 때 패했던 표차보다 1표가 많게 說欲했다할 수 있어 남궁원 회장이 느끼는 의미가 크다.

또 이번선거에서는 예술인이기보

다는 도내에서 2번의 군수와 국장 등 高位 職을 두루 걸친 公職者出身과 거뒀어졌다는 태도 藝術人들의 自尊心을 강조했던 남궁원 회장으로서의 큰 의미가

남궁원 회장은 회원들의 작품 활동에 物心兩面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부여된다. 뿐만 아니다. 이번선거는 또 다른 자존심이 걸린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예총 회장은 경기도의 首都都市인 水原出身을 단 회장을 지내 마치 경기예총회장은 수원출신들의 專有物처럼 여겨져 왔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예술인들은 수원출신들의 틀려리 역할로 만족해야 하느냐며 불만들이 많

았다.

이번 불만들을 이번이 해소했다는데도 의미 또한 크다. 그래서 이번 회장선거는 수원성의 사수나 아니면 탈환이나

하는 지역 간의 자존심이 걸렸던 선거의 승리자라는데도 남궁원 회장의 꿈과 지역예술인들의 꿈을 동시에 이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40,000여 경기도 예술인들의 수장인 남궁원 회장은 회원들의 작품 활동에 物心兩面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남궁원이 있는 예총은 오직 발전뿐이며 어디서나 남궁 원을

만나면 즐겁고 힘이 생기며 어디든 찾아가는 발로 뛰는 마당의 회장이 되겠다고 선거기간 동안 약속하고 다녔다.

그렇다. 약속대로 도내 31개 시군어디를 가도 남궁원의 선명한 足跡이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리라 믿는다. 지금 남궁원 회장은 대한민국의 중추도시인 京畿道의 藝術道知事 가 됐다.

그리고 남궁원 회장에게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全國의 예술단체를 統一하는 수장인 예술 대통령의 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도 남궁원 회장은 필히 이루리라 믿는다.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남궁원 회장의 무궁(無窮)한 발전을 축원(祝願)한다.

분당지역 민생치안 '사각지대'

경찰, 녹장 출동, 시민 위급상황 노출... 폭력범죄 증가 대책 시급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신고전화도 급증하고 있으나 경찰의 녹장 출동으로 인해 시민들만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분당구 야탑지구대에 따르면 부부싸움 등 폭력 관련 신고 전화가 하루에 5번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전화를 한 후 20분만에 출동하는 등 녹장을 피워 애꿎은 시민들만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의 인이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경

야탑동에 사는 한 주민이 부부싸움 중 살려달라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전화 후 20분이 넘어서 출동, 사건이 이미 종결된 이후에나 모습을 나타내 손조차 쓰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

이 시민은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한두 번이 들은 게 아니다"면서 "경찰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나오니, 신고를 해서 뭐 하나"고 따져 물었다.

분당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에 의한 범

죄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총 1321건에서 2006년 1417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경찰은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 후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려 5분만에 현장 도착하겠다고 밝혔으나 녹장 출동으로 인해 무색케 됐다.

이처럼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폭력 관련 신고 전화 또한 하루 5번꼴로 접수되고 있지만 관할 경찰서는 신고 접수 통계에 대해 감추기에만 급급,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인이한 태도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는 내부 전산망 탓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 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교체해 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서 "내부 전산망이 노후화 돼 역설 변한도 안 되는 등 데이터 뺏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도 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적십자 회비 '내주세요 네~'

다음달 28일까지 접수중

적십자 회비가 잘 걸치지 않아 복한을 지양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삽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적십자사의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한 '2007 적십자회비'를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모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시할만 모금한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해구호, 노숙자 지원, 아산가족상생 및 북한지원, 혈액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목표 모금액을 전년도보다 3%증가한 6억9천416만원으로 세우고 성남시 관내 회원 11만3천512명(개)을 대상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유지를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된 적십자회비납부금액은 납부 권장 기준금액인 개인 세대 주 5천원, 개인사업자 2만원 이상, 법인 3만원~50만원 이상, 학교, 종교 단체 5만원~10만원 등이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전국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면 되고, 지로 사이트(www.gro.or.kr)나 적십자 홈페이지(www.gyeonggi.redcross.or.kr) 등 인터넷 납부, 휘발리 마트 등 편의점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니인터뷰▶▶▶▶▶

초롱초롱한 눈망울 역사 체온 불어넣어요!

우리미래 역사문화체험단 성남지부, 주부강사 재취업 큰 호응

주부 송모(성남시 분당구, 37)씨는 한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업 주부였다. 게다가 결혼과 함께 자녀 양육에만 전념, 사회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엄마의 손을 어유를 찾게 시작했다. 송씨는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했지만 직장 경력이 없던 터라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취업 길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우연히 송씨는 (사)우리미래에서 노동부의 사회적응자리 사업 일환으로 고학력 여성 대상, 역사문화체험단 강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봤다.

송씨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기성취를 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씨는 바로 역사문화체험단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부 산하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역사교과 및 체험학습 강사 교육을 받았고 수료 후 역사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씨처럼 고학력 30~40대 여성들이 역사문화체험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부들이 있다.

(사)우리미래 역사문화체험단 성남지부지부장 오세현씨는 현재 18명의 주부들이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남지부에는 전업주부에서 전직 논문강사,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이력을 소유한 주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역사문화체험단을 통해 역사 강사로 재탄생했다.

이들은 유적지를 탐사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수락여행, 현장 학습, 특활활동, 방과 후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각 분야에서 역사 강사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성남 지역 복지관, 공부방 등 8개 기관, 120명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다.

사교육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자

녀들은 역사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매주 선생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역사문화체험단 성남지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 스터디를 통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자료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문화체험단의 강의 프로그램은 쉽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왔다.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 수업을 나눠 진행하며 저학년은 반복입력하기, 다식만들기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 체험을 통한 역사 수업을, 고학년은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이색박물관 기행'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주말역사체험', 동서양 미술을 한꺼번에 관람해 동서양 미술사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동서양미



술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세현 지부장은 "강사들이 직접 수업교재 및 수업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다"면서 "힘들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주5일제 시행과 체험학습 강화 등으로 강사들을 찾는 곳이 많아졌다.

고정 수업 외에도 수락여행, 현장학습에 초청되거나 단위학교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1년간 맞기도 한다.

오세현 지부장은 "한달에 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월급 액수보다 자기 만족감이 더 크다"면서 "세계화, 글로벌화 등에 따라 우리 역사가 잊혀지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다"고 밝혔다.

성남시빙상경기연맹 ...

초호화판 행사, 시민혈세 '물쓰듯' ... 트로피 등 대회시상품 턱없이 부족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빙상부 창단과 관련한 외압설과 경기도 광주시 소재 불법 건축물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의회 재선의원이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최윤길 의원(분당구 수내 1,2동, 판교동, 운중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본보는 심층취재를 실시해 이를 3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이다.
[편집자 주]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 빙상경기연맹 간판

예산 부족려 차액 착복 의혹 제기

최근 빙상부가 타 직종운동부보다 높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압설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 재선의원인 최윤길 의원(분당구 수내 1,2동, 판교동, 운중동)이 이번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성남빙상경기연맹이 대회를 치루면서 예산을 부족려 그 차액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05년 성남시장배 전국빙상경기대회와 2006년 제1회 성남시장배 전국중고등학교 쇼트트랙 대회를 개최하면서 트로피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부족려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회를 주최했던 성남시 빙상경기연맹 관계자들과 성남시 직종운동부 소속 빙상선수들까지 합세해 심판을 보고 심판비를 챙겨 증빙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빙상관련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최고 35만원까지 부족려 구입하는 등 대회시상품 및 책자 등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에 권당 6천원짜리 400부를 제작, 2백40만원을 들여 만든 대회 책자가 영수증만 있을 뿐, 증빙자료인 대회책자가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이나 체육회에서 발견되지 않아 발간 여부에도 의혹이 풀리고 있다.

또한 현수막의 경우, 봉사 행사 현수막은 5~7만원 수준으로 제작 납품하고 있다고 간판업체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유독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은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영수증으로만 개당 20만원씩 5개와 10개를 제작했다고 밝혀 다른 업

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 납품을 했던 관계자와 시상품 제작 유통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봉사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금액에 50%를 보면 그것이 유통단가로 되고 있다"고 말해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이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 3월 열린 전국 쇼트트랙 대회 종합우승 트로피의 경우, 중간 크기 단가가 책자에는 19만원이 표시됐으나, 실제 구입시에는 30~50% 가격인 5~9만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성남빙상경기연맹은 단가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업체가 요구했던 금액대로 개당 35만원에 구입했다고 말해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가까지 했다.

더군다나 이 제품은 10년전에 생산된 것으로 지금은 단종 되었을 것이라는 것

빙상대회 공금 횡령 '의혹'

회장이 시의원 압력(?)행사 뒷말 무성... 홍보책자는 영수증만 책자는 몰라

이 업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어, 끊임 구입과 관련해 석연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성남 시장이자 시민협세 임에도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타 지역 업체 한곳에 2년 연속 1천3백여 만원치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현수막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타 지역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자료 등 정산서에 구체적 입증자료 없이 제출하는 등 부실하게 정산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먹구구식 운영 및 관리에 구멍이 뚫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이에 대해 성남 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대회를 잘 치루기에만 노력했지 단가가 비싼지 판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쪽(기획사)에서 보내준 단가대로 통장을 통해 지급했기 때문에 착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자가 상품책자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금액도 확인 안하고 구매를 했느냐는 질문에 "확인 안했고 이미지가 좋은 대회를 치루기에만 전념했지 금액은 기획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빙상 임원은 "시상품의 경우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트로피는 책자에 기록된 공식가격표보다 최대 30%~5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면서, "성남시처럼 우승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비용이 과한 것 같다"고 말해 과다하게 부풀려 대회를 치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국빙상대회도 초호화판으로 치러

성남시 빙상경기연맹 회장 최윤길씨가 지난 전국빙상대회를 치루면서 초호화판 대회를 치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각종 예산이 대회개최 및 운영에 따른 직접 소요경비 항목으로 한정했음에도 심판 및 임원복으로 400만원, 선수 T셔츠 제작비(개당 1만5천원)로 375만원치를 제작하는 등 시민협세를 마구 사용했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심판비 역시 성남시장배 전국빙상대회와 성남시장배 전국중고교 쇼트트랙

대회에서 통상 국제 ISU심판 자격증이 있어도 심판비가 3~5만원 수준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나, 성남시는 유독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하루동안 치뤄졌던 2005년 성남시장배 전국 빙상경기대회에서 심판비용 10만원씩 20명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고, 보조원 30명에게 3만원씩 9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심판비용으로 290만원인 30%를 지급했다.

또한 35만원짜리 우승컵과 메달비용으로 63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수막 비용으로 개당 20만원짜리 10개 2100만원치를 제작하는 등 한마디로 돈 잔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천만원의 시민협세가 지원되어 그동안 치뤄던 제1회 성남시장배 전국중고등학교 쇼트트랙 대회 역시, 1백여명이 채 못되는 선수들이 참가했음에도 시상품 및 메달 등으로 675만원의 비용과, 심판비용으로 800만원을 지출, 여기에 진행위원 식대로 320만원을 지출해 버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심판(임원)복 400만원(40벌)에 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선수 T셔츠 1만5천원짜리 250벌을 구입하는 등 총 웃 값으로 775만원치를 사용해 초호화 시합을 개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용주 전무이사는 "전국에서 대한 체육회가 인정한 쇼트트랙 대회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 치루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심판비 역시 특별한 대회이다 보니 서울시도 그랬듯이 10만원 책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심판비용은 통상적으로 3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의 심판비 10만원 지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빙상부 창단에 숨은 후원자?

체육 예산을 감시 견제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이자 성남빙상

경기연맹 회장으로 있는 최윤길 의원이 최근 직장운동부 빙상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외압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빙상부 창단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체육회와 체육인들에 따르면,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창단 된 것은 2005년 3월, 도민체전을 위해 1월에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을 임용하고 적정 효봉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체육회는 당초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2004년 8월에 14억을 성남시에 요청하였으나 2005년도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 직장운동부 창단의 필요성을 느껴 같은 해 11월에 긴급하게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빙상부를 포함한 직장운동부를 출범 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04년 12월, 성남시 빙상경기연맹에 당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인 최윤길 의원이 회장으로 취임해 의혹의 시선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빙상부는 도민체전과 상관이 없음에도 갑작스레 창단해 최고 역수인 2억3천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고, 여기에 최 의원과 밀접한 관계이자 체육회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M모씨의 딸이 선수로 등록, 특별한 실적도 없이 2년여 동안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빚받침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모 의원의 추천으로 일했던 C씨 역시 친형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최근 사직한 M모씨의 딸 역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빙상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역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임을 감안할 때 제기됐던 빙상 외압설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한 체육인은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기초단체 이다보니 사실상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된 운동부인데, 전국체전을 위해 빙상부를 창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고,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창단배경에 의혹

을 보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실제로 자신이 추천해 몇 개월동안 아르바이트 한직은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친형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름이 비슷해 친형으로 오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주최해 놓고 심판을 봐?

성남시 빙상경기 연맹 임원들이 두번의 성남시장배 빙상대회를 열어놓고 조직적으로 심판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말장을 빙고 있다.

성남시 빙상경기연맹(회장 최윤길)이 2005년과 2006년 성남시장배 전국빙상대회와 전국중고등학교 쇼트트랙 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계자들이 심판을 보고 버젓이 심판비 10만원씩을 챙겨 공적성과 객관성, 그리고 도덕성을 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성남시 체육회 소속 빙상직장 운동부인 현직 선수들마저 심판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회운영에 심각성을 드러냈다.

다시 빙상 관계자는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와 주최측은 지원업무로 참여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심판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자신들도 대회를 치루면서 심판을 보았지만 심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만약 청구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2005년도 3만원에 해당하는 빙상대회 보조비를 받았던 보조원들이 2006년도에는 10만원에 달하는 심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판 자격기준과 관련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빙상은 다른 운동과 달라 고생했던 관계자들까지 심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출전하지 않고 대회를 치루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비를 준 것뿐"이라며 "다른 곳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익호 기자

성남아트센터, '국내 최초 영화OST 레코딩'

뮤지컬 맘마미아 실황 음반도 제작

1천6백여억원을 들여 만든 성남아트센터가 수준 높은 시설로 호평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화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공연 실황 녹음 장소로 활용되면서 음향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있다.

30일 성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최양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수' OST가 레코딩 되었다. 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국내 영화 OST가 공연장에서 녹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것이다.

또한 '이날 녹음은 '파리아이', '왕의 남자', '괴물' 등 국내 대표적 흥행작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이병우 감독이 맡고 연주하는 TIMF 앙상블이 맡았다. 이 감독은 지난해 청룡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수'에는 지진희, 강성연, 문성근, 오만석 등 인기파 배우들의 출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감독은 음악의 울림이 자연스럽고 음감을 잘 살릴 수 있는 장소를 수소문 하다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의 음향이 우수하다는 일소문을 듣고 OST 레코딩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맘마미아 실황 음반이 2월 말경에는 녹음될 예정이다. 국내 공연장에서 뮤지컬 실황 음반이 녹음되는 것은 지난해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노트르담의 파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맘마미아 제작사인 신시뮤지컬측은 지난해 예술의전당 공연 때 녹음하려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실황음반 제작을 연기해 오다 음향이 우수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의 음향은 말러 NO2 스페셜리스트 길버트 카를란,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루트드 마주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반 피셔, 세계 3대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테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예술인 화합과 위상 높일 터”

성남예총 회장에 이영식 후보 당선...1표차로 방영기 후보 따돌려



성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큰 축인 한국예술총연합회(이하 예총) 성남지회장 선거에서 제6대 방영기 회장을 물리치고 이영식 연예협회성남지부장이 당선됐다.

10일 오후 3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치러진 제7대 한국예술총연합회 성남지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이영식 후보가, 기호 1번 방영기 후보를 치열한 공방속에 1표 차이로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성남예총의 9개 회원단체, 총 45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방영기 후보가 22표를, 이영식 후보가 23표를 얻어 당선, 앞으로 4년간 성남 예총을 이끌게 됐다.

선거에 앞서 이영식 후보는 "언제든지 회원을 만날 수 있는 예총 회장이 되겠다"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 열정으로 봉사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회원들이 부르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형, 동생, 친한 친구 같은 예총회장이 될 것"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예총회장이 되면 제일 먼저 문화재단의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성남예총회장은 문

화재단의 당연직 이사로서 발언권을 활용, 문화재단과 정책 협력으로 지역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함께 당선 소감을 밝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당선자는 "성남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예술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전국 예술인들이 성남으로 모여들고 지역 단체장 및 기관장들에게 예술인들의 화합과 위상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당선자는 "예총 사무국은 말 그대로 사무를 보는 것이지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각종 예술 행사 개최 시 회원단체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 예총 부설 예술기획단 설립과 예총 자문위원 구성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발전에 앞장 서겠다"면서 "열심히 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성남아트센터 관객 100만 돌파

개관 후 1년3개월만의 쾌거 수준 높은 차별화전략 주효

수도권 문화허브로 부상한 성남시 성남아트센터의 전시·공연장 관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성남아트센터(사장 이종덕)는 지난 2005년 10월 개관 이후 지난달말까지 1년3개월만에 공연장 49만7천263명, 전시장 50만2천980명 등 모두 100만243명이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아트센터는 그동안 말러 교향곡 전문 지휘자 길버트 카를란, 자체제작 오페라 '파우스트',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김수진과 슈부트가르트 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공연중인 뮤지컬 '맘마미아' 등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을 잇따라 선보였다.

또 브런치 문화의 흐름을 겨냥해 기획한 '파티네 콘서트'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때면 전석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후 9시 와인을 곁들인 '수아레 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흥행은 국내 최초 또는 성남 최초 공연을 유치하면서도 티켓 가격을 서울 대형 공연장의 70% 수준으로 책정해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관객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센터 측은 분석했다.

3개 전시실의 본관과 2개 전시실의 별관을 갖춘 미술관의 경우 필립 플리송의 바다사자전, 피카소 로댕과 함께 하는 유럽여행전, 샌프란시스코 과학 박물관 등으로 전시공간이 부족했던 성남지역에 문화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성남아트센터측은 "올해도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의 한국 초연, 라디오 프랑스로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메타전 등으로 더 많은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무대, 큰 감동!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Ensemble Theater Festival

앙상블시어터 페스티벌 공연일정
 2007. 3. 2 ~ 4. 1

3월 2,3,4일
신의 아그네스

박정자 - 미라임, 최정수, 이은숙 - 유희, 김민준, 김재서 - 아그네스

3월 14,15일
하락이아기 극단 쉼디

3월 24일
베이비시터 극단 '어우러'



객석의 경사도를 높이고 장애물하여 탁 트인 무대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3월 9,10,11일
Arts Festival Dimension
 피아니스트 주희성 · 신정희 / 노래 토키(김민준)

3월 17일
청개구리
순수 포크 음악회
 김희철, 윤연선, 이상환 등

3월 30일
재즈 디바 Malo 콘서트
 정영 & 재즈밴드

3월 31일
전제덕의 전제덕 & 재즈밴드
재즈하모니카

3월 29일
바리톤 성기훈 독창회
 성기훈 (piano:한상민)

4월 1일
김주홍과 노름마치
 김주홍과 노름마치 / 김연, 이항식(베이스)



주희 성남문화재단
 티켓예매 1538.7990
 문의 031.783.8000

세계 최고의 공연을 처음 만날 수 있는 곳
The First Experience You Do, The Greatest Arts You Meet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주말산책

성큼 다가온 겨울, 온천여행 어때요?

가족나들이 온천지 '호평' 경기관광공사 명소 추천

직장인들의 주 5일제와 학생들의 놀토(노는 토요일)가 정착되면서 가족들의 관심도가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과 휴식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쉬는 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는 아쉽고 멀리 나갔다 오기는 피곤할 것 같은 주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주기 위해 성남일보가 테마가 있는 곳을 금요테마로 정하고 자세하게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성남시내를 비롯해 근교에 방문할 만한 곳을 미리 찾아내 독자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다가온 겨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픈 계절이 돌아왔다. 멀리 갈 것 없이 당일 혹은 1박2일 나들이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온천들이 수도권에도 산재해 있다.

경기도 포천,이천,공주,파주,화성,양평 등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온천지가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가족 온천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신현태)가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에 찾아갈 수 있는 온천 명소를 추천했다.

◆ '닥터피쉬' 온천 인기

원래 이천은 사시사철 솟아나는 더운 샘물을 기이하게 여겨 눈을 씻었더니 눈병이 말끔하게 나았다는 전설이 있는 지역이다. 이천의 대표온천으로는 이천스파플러스가 꼽히는데 나트륨함량이 많아 피부미용, 부인병, 신경통 등에 좋다.

또한 새로 생긴 독일식 온천리조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어로 '온천의 낙원'을 뜻하는 이천 테트베덴온천에는 불함중막, 웰스센터, 테라피 시설과 더불어 육상의 하늘정원에는 조깅트랙, 파팅그린, 주스바 등을 갖추었다. 야외 온천풀 슬라이드 옆 130여평 공간에는 3개의 치료하는 작은 물고기 닥터피쉬 '천천어탕'이 있다. 탕에 몸을 담그면 새끼손가락만한 천천어들이 물러들어 각질을 쫓아내 마사지효과가 크다.

공주 퇴촌에 위치한 스파그린랜드도 웰빙물에 발맞추어 닥터피쉬를 도입한 온천 일반 사우나시설이나 온천시설의 물을 분사하는 구멍만 뚫어 흘려내는 수관이 아니라 정통 독일식 비데를 실내와 노천에 도입해 대체의학 수치료 개념으로 설계되어 총 120여 개의 분사구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온다.

각종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효과만점. 정종, 녹차, 와인, 허브, 초콜릿 등의 이벤트탕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아플로상'을 시작으로 건물 벽면에는 등반하는 사람과 모비에 있는 '책읽는 아파와 딸'의 브론즈상, 실제 경주마와 같은 사이즈 제작된 예기말을 포함

한 가족말의 탄탄한 브론즈상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 소 등의 각종 동물상, 비너스상 등 각 시설들마다 배치되어 있는 예술 작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 물맑은 양평, 아름다운 정원 속 온천

양평 개군면에 위치한 세르빌 유황온천은 아주 정원이 매우 아름다운 곳. 남한강 물줄기와 조각공원으로 알려진 양평호천탕이 인기다. 유황천은 신경통, 당뇨병, 외상후유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단 은색물은 변색되거나 착용 금물. 습식사우나, 건식사우나, 허노끼 스파사우나, 향토보급원질탕도 이용해볼만 하다.



◆ 온천 대거 밀집한 포천

화성은 월문온천, 읍암온천, 발안식염온천 등이 손꼽힌다. 특히 발안식염온천은 공룡알 화석지대로 유명한 화성시 일대에 서식했던 공룡의 잔해가 해수와 결합한 화석해수로 신생대부터 지금까지 6천5백만년동안 한반도 지하에서 숙성해 나타나는 온천수이다. 탄알이지만 특유를 하고 말려도 끈적거리지 않는 것이 특징. 읍암온천과 월문온천은 700m 암반에서 용출하는 천연온천수로 비누를 조금만 써도 거품이 잘 일어나고 피부탄력에도 좋다.

한편 포천은 이동막걸리와 더불어 일동 및 화현 지역은 신복온천과 산정호수

화원보도온천, 제일온천, 일동사이판, 명덕래지, 엑스텐벨리 등 온천밀집지역으로 유명하다. 산정호수와 열무계곡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긴 후 온천을 찾는 것도 하루 나들이로 좋겠다.

◆ 신비한 붉은 물 솟는 김포

김포 약암출연천은 처음 솟아오르는 물은 투명인데 10분 정도 지나면 공기에 산화되어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하 460m 깊이의 붉은 암반에서 용출해 염분, 철분,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병, 눈병, 신경통 등에 좋다. 한편 파주지역에서는 일본약탕, 주외주외탕을 운영하는 아쿠아랜드, 인삼탕을 운영하는 오두산랜드, 황토탕, 머스소금탕, 안마기혈탕에 아외음약탕, 물레방아 등을 갖춘 금강산랜드가 손꼽힌다. 파주 지역, 자유로 드라이브와 묶어 하루 여행으로 적당하다.

다가온 겨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픈 계절이 돌아왔다. 멀리 갈 것 없이 당일 혹은 1박2일 나들이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온천들이 수도권에도 산재해 있다.

경기도 포천,이천,공주,파주,화성,양평 등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온천지가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가족 온천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남희망 프로젝트

성남일보의 창간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남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게재되는 월요테마기획은 (주)뉴스데이 | 성남일보(회장 김중권)와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재단(이사장 김광배)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뉴스데이 | 성남일보가 지역신문으로는 최초로 시작된 성남희망프로젝트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지역 노인복지의 실태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독자들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간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월요테마 기획 취재는 송현주 기자가 취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1년간 진행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통해 지역 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마련한 성남희망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 주]

아~ 어머니 ! 어머니! ... 늙은 아들의 사모곡

“樹欲靜以 風不止 하고 子欲養以이 親不待라”-단 하루라도 어머니와 ...
상대원동 이영옥씨 중풍, 치매로 3년째 앓아 누운 어머니 혼자서 돌봐



“어머니와 하루라도 더 함께 있으라는 뜻에서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 중풍과 치매로 3년째 누워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이영옥(중원구 상대원 3동, 52씨).

추운 겨울, 문 밖의 날씨는 영하를 기록하는데도 3평 남짓한 방은 냉방이다. 그 한 가운데 87세 노모가 하루 종일 스티로폼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있다. 쉰 살이 넘은 늙은 아들은 휴어 종이이라도 날까봐 어머니 몸을 이리저리 돌려 눕힌다.

아들 이영옥씨는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도 “이렇게라도 좋으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눈시울을 적신다. 어머니, 장순복 할머니는 3년전 중풍으로 쓰러져 오늘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치매까지 겹쳐 사랑하는 아들도 못 알아본다.

이씨는 “어느 날은 속상하죠. 아들을 못 알아보니”라며 “혼자 많이 울어요.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 것은 어머니를 돌보라는 하늘의 뜻 같아요”라며 눈물이 핑 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이씨가 간경화로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태라며 죽을 날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관까지 찌웠어요. 복수가 차올라 자포자기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거든요”라며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때문에 죽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을 살려준 하늘에 감사해 하며 어머니를 지극적성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씨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워 있는 어머니의 몸을 깨끗이 씻겨준다.

어느새 점심이 돼 간단한 식사를 차려 어머니에게 먹기 다음 자신도 한술 뜬다. 이후 방청소 및 빨래를 하고나면 어느덧 저녁이다. 이것이 이씨의 지난 3년간의 삶이다.

이씨는 천거리를 사러 인근 시장에 가려해도 그사이 어머니가 걱정이 돼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에 다녀오는 것이 이씨가 가장 멀리 나가는 외출이다.

이씨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멀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사이 돌아가시기라도 하거나 어디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라며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루 종일 붙어서 수발을 들어야 해요”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해서 장순복 할머니는 아들 단둘이 남겨 되었을까. 그것도 병든 아들이 어머니를 힘겹게 돌보고 있을까. 2남 1녀를 둔 장순복 할머니. 출가한 딸은 넉넉한 형편이 안돼 도움을 쓸수 없는 상태며 작은 아들은 수년째 행방불명이다. 이 때문에 큰 아들 이씨와 단둘이 남겨졌다.

게다가 이씨도 10년 전 이혼을 했고 남매를 홀로 키웠으나 지금은 연막이 안되는 상태다.

이씨의 아들과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나이에 가슴을 반복했고 아들은 어린 나이에 또래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다.

이씨는 땅을 치며 울어도 보고 아들을 혼내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중 가슴앓던 딸이 배가 불러서 돌아왔다. 아버지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입신중풍 수술을 받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내, 가슴앓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수 없는 상태다.

이씨는 “아버지라고 해준 것도 없고, 해줄수 없는 것이 없으니 미안하죠.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라며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아버지로서 넉넉하게 먹이지도 못하고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라고 자책했다.

그렇게 해서 늙은 아들과 어머니는 단둘이서 3평 남짓한 방 안에서 세상을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말도 못하고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지만 함께 할수 있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며 “소원이 있다면 더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저는 아프더라도 어머니만 오래 사실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보살피면서 둘이 살수 있어요”라며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토해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세상 한쪽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든 어머니를 사랑하는 늙은 아들이 있다. 그 아들 또한 간경화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자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만 오래 살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어머니와 오래오래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운 겨울, 3평 남짓한 방, 보일러 불돈이 없어 손수 스티로폼으로 만든 침대에 어머니를 눕힌 아들의 정성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 주었으면 한다.

송현주 기자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제5대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성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의회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
-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회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발전 연구는 이대로 괜찮은가...①

성남발전연구소 기능상실 시 '생색내기' 연구에만 관심

부실한 용역 성남 상징물 건립 계획 무산 ..시민혈세 낭비 초래도



성남발전연구소 간판

광역도시 규모로 거듭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한 성남발전연구소(이하 성발연)가 성남발전을 위한 순수 연구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발전연구소는 시가 의뢰한 연구 용역과 자체 연구 과제, 각종 세미나 등으로 나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경우 성남시에서 기금 전액을 출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 결과 보다 시의 대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성남발전연구소가 용역을 맡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사업을 수행했던 '성남 상징물' 사업이 건교부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

성남시는 성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남시 상징물' 설치 계획을 수립, 성발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성발연은 지난 2005년 '성남 상징물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여수동 일원은 성남시민 화합과 결속의 장소로서 장소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여수동 96번지 일원을 성남시 상징물 설치의 최적지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는 여수동 96번지 일원에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그린벨트 내 설치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상징물 설치 사업은 토지 매입비로 6억여원을 사용하고도 추진에 제동이 걸려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6억원의 예산을 땅에 묻어 둔 채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이 같은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발연의 연구 결과가 성남시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연구인지, 실적을 내기 위한 연구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성남시에서 자금을 대고, 경원대가 연구 수행을 맡고 있는 이 체제에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성남시가 시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성남발전연구소가 당초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일 일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가에서는 성남시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경원대학교에 수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의회 용역의 경우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 성남발전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성남발전연구소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성남발전 연구소 이대로 괜찮은가'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청계산악회

자연과 환경문화를 보호하고 산행을 통한 회원의
친목도모와 건강을 증진 시키는 청계산악회

-경기본부-
회원가입문의 : 031)756-7880 <http://www.khimb.net>

 청계산악회

수어장대 올라... 까치소리 솔바람소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 "남한산성은 거대한 박물관이다"

'구비농성 습 고르미/ 동서남북 대문 안에/ 오는 소년 가는 손님/ 이별 아리랑 수어장대 마루 올라/ 까치소리 솔바람 소리/ 오백의 해를 넘긴/ 인조대왕 눈물 이어/ 아리랑 흔이 되어/ 낙엽위에 땀구는데'

김진원 시인의 남한산성 아리랑 일부다. 김진원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가들이 남한산성을 노래했다.

이것은 남한산성이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쉽터로, 자연 생태 학습장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남한산성을 보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순수 민간단체가 있다.

바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남사모. 회장 전보삼이다.

지난 1996년 병자호란 발생 360년이 되는 해다. 병자호란 발생 360년을 맞아 그해 4월 각계각층의 전문가 10여명이 지역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사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남사모'다. 전보삼 회장은 "그동안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10여명으로 출발한 남사모는 현재 회원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또 교수, 전문가 등의 주축으로 출발한 남사모는 일반시민, 역사를 좋아하는 시민,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 등 남한산성에 애착을 가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전문가의 설명이 곁들인 남한산성 산행, 토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산행을 통해 남한산성의 생태나 훼손 상태 등을 시찰하고 토론 자리에서 산성 보호와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진다. 남사모 창립 초창기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제 평가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후 회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남사모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때부터 남사모는 남한산성 바로 알리기 작업에 돌입, 남한산성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다.

가장 먼저, 남사모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던 남한산성 문화재 복원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남한산성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거쳐, 행궁과 성곽 등 산성 내 각종 문화재에 대한 시급한 복원 및 정비를 주장했다. 남사모의 꾸준한 활동으로 인해 행정당국에서는 남한산성 내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남사모는 남한산성의 문화재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을 끌어낸 장본

인이다. 게다가 행정당국에 끊임없이 남한산성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캠페인을 벌여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사모는 시민들에게 남한산성을 바로 알리기 위해 산성 내 산재해 있는 금석문 80여곳을 찾아 탁본을 떠 개최한 '남한산성 금석문 탁본 전시'를 비롯해 남한산성 고문서 60여종, 200여쪽을 찾아내 연 '남한산성 고문서' 특별전시, 남한산성 사진전 등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전시를 개최했다.

또 지역 초, 중, 고 교장선생님, 사회과 교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남한산성 역사문화강좌를 열었다.

전보삼 회장은 "남한산성에 대한 가치를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 관련기관에 산성 보호와 산성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정책 제언 등 남한산성 종합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왔다"면서 "남사모는 지역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일선 하나로 산성의 중요성과 산성을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사모는 남한산성을 대한민국 대표 산성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충원주 기자>

수요테마기획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새로운 지역실정을 책임질 성남시회의 출범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발전모델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안 패러다임을 찾는 과제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인 자방자치체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공동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출발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출발선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일보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수요테마기획 -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된다'를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 미니 인터뷰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전보삼 회장

"후손들에게 물려 줄 민족의 자산" 박물관으로 운영할 계획

"남한산성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민족의 자산이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남사모' 전보삼 회장은 "남한산성은 지역 문화유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면서 "남한산성은 역사와 문화, 생태의 보고로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문화유산이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지역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설립, 올해 11년째가 됐다. 전 회장은 "11년이 됐지만 회원 한사

람, 한사람이 남한산성을 사랑하자면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회원들이 힘을 합쳐 남한산성을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발전 시켰다"고 말했다.

남사모 회원들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단 1회도 거르지 않고 매달 남한산성 답사를 실시해 산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을 독려, 정책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산성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행정당국을 비롯해 시민들이 남한산성에 대해 재인식,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전 회장은 "남한산성은 그 자체가 자연, 생태,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대한 박물관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은 단순 산성으로 인식됐던 남한산성에 대해 남사모는 시민대상으로 계몽 및 교육 활동을 펼쳐, 우리의 훌륭한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인식시켰다. 이것을 바탕으로 남사모는 남한산성을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 남사모에서는



남한산성을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자연생태 학습장, 역사 교육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남한산성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부지사 팀장

암·뇌혈관 질환 등 보장성 확대 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의료비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 땅위에 뿌리내린지도 30년이란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의 수명이 76 - 80세 이상 늘어나면서 또한 처음 의료보험이 도입 당시 단순 진료 및 수술 등에 한정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989.7.1일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도 의료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그간 보험급여 체계가 저부담 저급여의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보다 낮으며(2005년 61.4%), 올해는 68% 2008년에는 71.5%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암 등 중증 환자의 보장율도 현재 47%에서 2007년도에는 75%까지 보장성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보장성이란 총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서유럽 국가 대부분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보장성이 80% 이상으로 우리보다도 높다. 우리도 저부담 저급여의 보험체계에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하여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을 보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특정암결집 본인부담금율 50%에서 20%로 인하, 암·뇌양성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적용, 고액·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을 완화,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외이재건술, 장기이식(간,심장,폐,췌장)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이 강화된다.

또한, 초음파, PET(양전자 단층촬영장치)적용,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적용, 기준병실 확대, 분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현금보상항목이 더욱 확대(지급기준의 80%까지), 9개 희귀난치성(예반스증후군, 노인성 황반변성, 경질성 경희증 등) 질환이 보험혜택적용으로 본인부담금 20%만 적용, 담도내 결석 제거(제외 총격파쇄술)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본인부담금 220,000원에서 47,000원으로 적용, 요실금치료를 위한 보험급여항목확대(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 1,020,000원에서 200,000원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적용을 지

속적으로 늘려 왔다. 앞으로도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하더라도 중증환자에 급여혜택을 넓혀 가계파탄을 막아야 진정한 건강보험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입자·의원, 보험자 모두가 공동관리, 공동책임, 공동부담으로 관리의식 제고가 적절히 필요하다.

2007년에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및 의료이용량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전년대비 6.5%)할 수밖에 없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감기준을 대폭 완화 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비 및 약제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을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문의 : 721-9922

▶▶▶▶ 네티즌 칼럼

핵은 인류를 파괴하는 최후의 수단 경제적 지원 앞서 북한 핵포기 선언 받아내야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의 많은 외국 학생들은 놀랍게도 북한의 '김정일'을 모르는 친구가 없다. 그만큼 북한의 현실이 2006년 최대의 이슈였나 보다. 세계를 핵실험으로 위협하며 핵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나라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이런 화해의 분위기는 공멸되고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와 주변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회담을 하며 각

나라간의 의사를 교환하고 세계평화의 복원문제 해결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왜 방관하고 있는가. 자유서방을 비롯 미국,한국,일본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밖에 없다.

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왜 북한이 핵을 실험하고 보유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왜 첩조망이 존재하는가. 핵은 인류를 파괴하고 말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핵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종식케

하는 종말의 것으로 다시는 우리 눈에서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한다.

나는 정치가도 핵전문가도 아니지만 최소한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대대적인 지원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북한에 경제적 지원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런 지원들을 이용하여 다시 핵개발의 무자에 쓰인다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우리 학교의 외국친구들이 북한의 김정일 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기어엿으면 좋겠다.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는 테러와 핵무기 확산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온 세계가 평화로운 2007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Christchurch school 9학년 윤정호



성남일보 주최 '명사 초청의 밤' 성황

각계 명사, 시민 참여 ... 화합의 하모니 박수갈채



오는 7월 창간 7주년을 맞는 성남일보가 지역에서 최초로 성남시민과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남일보 주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후원으로 개최된 '제 1회 성남 명사 초청의 밤'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성남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에 시작에 앞서 성남일보 김종균 회장은 "지역 최초의 인터넷 일간신문으로 창간한 성남일보는 지역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면서 "이

행사는 지역 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청소년 등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우 개그맨과 권수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른 강원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사랑으로'를 불러 특유의 저음을 뽐내 주변들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어 김대진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부장이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고영환 성남시새마을회회장이 '탈국화 여인'을, 강선장 한나라당수정지구당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당신은 나의 운명'을, 정용석 분당 FM 대표가 '사랑'을 불러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 이승필 성남소방서 '무인도'를, 방영기 성남에총회장이 '이별의 인천항'을,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이 '사랑하는 이에게', 장정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남행열차'를, 전혜숙 (주)타워케슬 대표이사가 'stand by your man'을, 남궁원 경기도총연합회장이 '영영'을 불러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운동주의 별래는 밤'을, 최연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장이 '도종환의 담쟁이'를, 한춘섭 성남 문화원장이 '오 성남이여' 등 시낭송을 해 무대를 더욱 빛냈다.

이와 함께 가수 송대관과, 한서경, 옥희, 박일남, 코미디언 원재근, 함재욱, 필립무용단, 합합댄스 'LJ'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갈채를 받는 등 분위기를 달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김우진(서현중, 3학년) 학생이 2년여 동안 연마한 톱다리미를 연주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송현주 기자

윤준모의 웃음복지칼럼

스트레스와 웃음, 그리고 건강

크게 웃는 웃음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해결사



사람이 살면서 받는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Stress)라고 부른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생활환경이나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심지어 스트레스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 뿐 아니라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자극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어 스트레스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은 타인이나 주위에서 받는 외적인 스트레스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내적인 스트레스로 대별할 수 있다. 이때 타인에 의한 스트레스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한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정신적인 내적 스트레스에는 모든 나쁜 감정, 불안, 공포, 초조, 긴장, 슬픔, 걱정, 시기, 질투, 증오와 분노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변화가 일어난다.

불안, 공포, 근심, 걱정, 초조, 짜증 등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 심장을 상하게 하는 반면 기쁨, 만족, 웃음, 폭소 등은 부교감신경을 자극시켜 심장을 진정시키고 몸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질병의 대부분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주요 인자로 지목되는 질병만 2백80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시작한다.

아드레날린과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유발된다. 굳어진 동맥의 위치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기쁨, 감사, 칭찬, 배려, 만족, 웃음은 뇌에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연돌린분비를 촉진하므로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 좋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긴장에 대한 최고의 해소책이자 스트레스 자체의 발생을 막아 주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를 강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는 적극적

인 사고를 갖고 크게 한번 웃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크게 한번 웃는 웃음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해결사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다. 건강은 누가 가져 갔다 주지 않는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음자세 즉 "웃어 넘기"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면서 여유있는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린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남사회복지연구원장



브리핑 뉴스

장민호 도시개발 사업단장, 수정구청장 발령

재정경제국장에 김영선



성남시는 6일 수정구청장에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전보 발령하고 김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그리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또한 신남현 경기도 부자진흥과 미주유지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엄금용 경기도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을 도시주택국장 직무대리로 각각 발령했다.

이전에 제15대 수정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장민호 구청장(58)은 지난 1968년 6월 15일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성남시 판계장, 새마을계장, 재정경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등을 거친 행정봉으로 임명에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장 구청장은 지난 80년 내무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 등을 수상했다.

“사학 명문 풍생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제14대 최용욱(5기) 회장 취임 '동문발전에 최선의 노력다할 터'

1만5천여명의 졸업생과 4만5천여명의 풍생가족을 보유하고 있고, 성남지역사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이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문회 활동에 나섰다.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는 28일 이취임식을 갖고 제13대 이용기(3기)회장에 이어 제14대 신임회장 최용욱(5기) 회장이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신임 회장은 "저를 믿고 제14대 풍생총동문회장으로 선출해준데 대해 풍생 동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한다"고 감사인사하고, "원칙과 목표를 소리내어 강조하지 않고 일상속에서 묵묵히 사업별, 단계별, 임무별로 계획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14대 풍생총동문회장으로 모든것을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자람을 보완하기 위해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저 또한 저의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동문들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격려사에 나선 풍생고 교사 출신인 강선장 한나라당 수정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충만한 사람이 많음에도 격려사에 나선 것은 28년동안의 가장 오래 근무했던 이유로 선택된 것 같다"며 "이제 풍생고도 성남시 역사와 함께 명문고로 자리잡은 만큼 후배들을 위해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했던 동문들도 "새로 출범한 14대 회장에 대해 축하인사와 함께 동문의 발전시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노력한다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축하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1974년에 개교해 1만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제14대 최용욱 회장은 성남초, 풍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풍생고 5기 동창회 감사, 총동문회 7,8,9대 부장직을



역임하고, 성남시 학원연합회 컴퓨터분과 위원장, 성남 자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한국 참사랑 복지회 이사 등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성남지역 운영위원, 하대원 아파트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대표 초대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교육위원회 이사, 현재 세종 회계 컴퓨터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경제활성화 선도기관 뭉 총실

체계적인 기업 지원 체계 구축... 세계속에 성남 심는데 큰 몫



조사 서비스와 수출

성남시 施設管理工團(1997년)과 文化財團(2005년)또 産業振興財團(2001)들은 성남시가 수의사업을 겸한 주민편의를 위해 출생시킨 兄弟組織이다.

이 가운데 산업진흥재단은 제몫을 충실히 해내 지난2006城南市議會行政監査에서 다른 재단들과는 달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는 經濟政策에 대한 정책연구와 農夫의 開發 정신으로 攻堅的이며 開拓經營을 해달라는 주문도 받았다.

이런 淸목합당한 평가는 김봉환 代表 외에 總괄정책에 능한 서완섭 計劃室長과 김광수 計劃經營팀장 등을 포함한 全職員들이 나보다는 재단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私心없는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적자경영을 하면서 자기 뭉만 흥건다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과는 대조적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누적인 적자에도 成果給을 받아가며 뭉까지 갈랐더니 公단의 존재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번 比較속의 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001년에 문을 열고 관내 中小企業과 벤처기업들의 同伴者로 海外企業信用

可能性이 높은 有力市場調査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各種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企業經營의 改善와 競爭力強化에 필요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지원으로 기업들의 生産性 提高와 숨어 있는 販路를 찾아 안내하는 역할로 세계속에 성남을 심는데 큰 몫을 해냈다.

재단에서는 지난해 36억7천여만 원의 事業豫算을 策定해 중소기업과 벤처企業育成支援, 綜合貿易投資情報提供 및 國內外 마케팅 지원, 國際技術交流와 投資誘致支援, 地域革新體系構築 등 五大技能 28개 細部單位事業을 推進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

특히 高有價와 원외와 換率下墜 등으로 인한 長期的인 經濟不況속에서도 해외마케팅 분야에서는 13회에 걸친 海外博覽會 및 市場開拓團派遣 등에서 163개 기업들이 참여해 9억8천4백만 불에 달하는 商談을 해 3억5천5백만 불의 契約實績을 올렸다.

또 지난해9월에 열렸던 전국최대규모의 優秀商品博覽會는 관내 124개 기업들이 참가해 22억원의 賣出實績과 서로 競擲된 해외바이어들의 상담으로 1억2

천 만 불의 계약실적을 올려 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

또 재단에서는 기업 운영의 핵심인 資金難을 해소시켜 주기 위 해 기술신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24개사

에 144억원을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다. 또 雇傭增大를 위해 기업이 참여해 운영하는 5개소의 비즈니스센터 가운데 4개소가 운영돼 72개사 1,261명의 雇傭效果를 냈다. 그리고 3,280억원의 賣出과 38억8천만 원의 輸出實績도 올렸다. 이런 실적을 올린 관내기업들에 贈示하는 275명의 實務任職員들과 희망시민들에게 5회에 걸친 實務養成教育도 시켰다.

또 관내업체 중에 30개사를 선발해 各種政策資金의 유지와 기업들의 대외 信認度를 높일 수 있는 期會提供을 해주고 있다.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經營環境의 變化를 迅速히 適應해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技術과 製品에 대한 信認度 向上을 높이기 위해 이노비즈 認證獲得을 支援하고 있다.

또 40여개관내업체를 선정해 先進經營技法과 마케팅전략 디지털분야에 다양한 컨설팅기회를 제공해 벤처기업들의 역량강화와 情報交流를 自由로 할 수 있도록 制度的裝置를 마련했다. 이같이 2006년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낸 재단은 올해 도 운영의 성공을 위한 장미꽃 育育眞을 내놓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개 사업이 늘어남

五大技能 3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자금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에는 시에서 출자한 20억원과 中小企業團과 金融機關들의 協조를 얻어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해 기업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내3개사를 선정해 經營革新과 新技術開發, 마케팅分野에 각 3억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해 國際競爭力를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目標중추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내 바이오 및 醫療器産業을 戰略産業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하는 한편 1억2천8백만 원을 여기서 생산된 製劑의 販路開拓費用으로 策定했다. 그리고 성남 메디칼 프라자 사업을 추진해 醫療器分野의 전문행사도 뿌리를 내리게 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으로 SK 아파트형공장(중원구상대원공단내)에 50억원을 들여 1,700평 규모의 제1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해 15개의 회사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올해로 출범5년차를 맞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이 같은 사업계획과는 달리 올해를 기업들의 결에서 苦樂을 같이하는 동반자의해로 정하고 이를 實行하기 위해 보다 더 專門的이고 迅速하며 親切하기로 했다.

또 專門人力을 보강해 내부역량을 확대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成長事業을 위한 地域特化事業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리고 클러스터 등 심화된 정책개발과 IT BT NT등 첨단산업의 유지와 네트워크 등으로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名實相符한 經濟政策을 立案하고 修行하는 先導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했다.

2007년 건강보험료 6.5% 인상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환자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박남희와 북부지사지사장 남시홍은 2007년도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종전 131.4원에서 139.9원으로 8.5원이 증가했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48%에서 4.77%인 0.29%가 인상돼 전년 대비 6.5%가 인상됐다.

이와함께 의료수가도 60.7원에서 62.1

원으로 전년 대비 2.3% 올랐다.

이같은 인상은 OECD 국가의 80%의 보장성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급여의 보험급여체계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71.5%까지 확대하고, 암 등 중증환자 47%에서 2007년도 75%까지 확대 되었기 때문이다.

성남남부와 북부 공단 관계자는 "환자

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민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비중가중세 등을 감안한 수가조정 필요성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보장성이 강화된 내용을 살펴 보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MRI 건강보험 일부 적용 ▲고액, 중증상병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완화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외이재건술 보험급여 적용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적용 ▲기존병실 확대 ▲본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현금보상항목이 확대 ▲9개 회귀난치성 질환이 보험혜택적용으로 본인부담금 20%만 적용 등이다.

광고문의 : 031)721-9922

한국문인협회 부 이사장 겸 성남지부장 소설가 김건중씨

“나를 키운 성남 문단에 뼈를 묻겠다”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에 당선된 김건중 지부장

나는 무엇이 되든, 끝내 성남 문단을 버리지 않겠다.”

성남 문학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버지인 김건중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성남 문학은 나를 키웠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으로 성남 문단에 뼈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건중 지부장은 성남 문학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아버지다.

지난 1987년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장을 맡은 김 지부장은 문학의 불모지였던 성남에 지역 문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가장 성남적인 토양에서 한국적인 문학이 싹틀 수 있다는 기초아래 김 지부장은 지역 문학의 발판을 만들고 지역 작가를 배출해 내기 시작했다.

김 지부장의 손을 거친 신진 작가만 해도 성남지역 작가 100여명, 경기지역 작가 3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지부장은 성남을 문학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문학협회 지부장들을 성남으로 모여들게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성남은 전국 문학계에서 ‘성남이 곧 중앙’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성남 및 경기도 작가들이 성남지역에서 책을 발간, 문단 데뷔를 통해 중앙 진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01년 김 지부장은 경기도

문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이 같은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많은 문인들이 중앙 진출을 위해서 성남으로 모여들고 있다.

또 ‘성남문학’을 발행, 전국 최고의 문학잡지로 만들었으며 ‘경기문학’, ‘동인지’ 출판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 주부들의 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 문학’을 출판하고 다양한 장르의 시, 수필, 소설 등 육성책을 펴내고 있어 많은 문학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김건중 지부장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선출돼 한국 문학계에 명실상부한 대부가 됐다.

8800명의 선거인단이 한국 문인들을 위해 힘써 줄 사람으로 김건중 지부장을 지목한 것이다.

성남, 지역에서 벗어나 경기도로 활동 영역을 넓혔던 그가 한국 문학계 전체를 이끌어 가게 돼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지부장은 어깨가 무겁다. 김 지부장은 “이사장을 도와주는 역할로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문인 복지 증진, 순수문학의 정체성 확보, 문인협회 위상 정립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학의 대중성으로 인해 순

수성을 잃어가고 있어 김 회장은 순수 문학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 부칠 계획이다.

김 지부장은 “21세기는 수필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간색 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시, 소설 등의 원색 문학이 활성화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생각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김 지부장은 글 쓰는 사람들이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계획이다.

김 지부장은 “문자로 돼 있는 것은 모두 문학이다”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문학을 접하면서 살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시민들이 문학과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문학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친화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을 것을 밝혀 한국문인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했다.

김 지부장은 “문학은 완성이 없다. 죽을 때 까지 하는 것이 문학이다”면서 “문학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부족한 작품 속에서 살다 죽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지부장은 한국 문학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면서 지역 문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양성, 지역 작가 권익 보호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김건중 지부장은 성남시문학상, 경기예술포럼상, 경기도문학대상, 경기도 문화상, 문화체육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모래성을 쌓는 아픔’, ‘바람 가르기’, ‘아직도 그날은’, ‘바람은 머물지 않는다’, ‘무너지는 시간’, ‘발가벗은 새벽’ 등 14권의 소설집과 30여편의 중,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또 ‘무너지는 시간’, ‘바람가르기’ 등 개인 집필 소설이 10만부 이상이 팔려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이 나왔다.



김건중은 ...

지난 1987년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장을 맡은 김 지부장은 문학의 불모지였던 성남에 지역 문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가장 성남적인 토양에서 한국적인 문학이 싹틀 수 있다는 기초아래 김 지부장은 지역 문학의 발판을 만들고 지역작가를 배출해 내기 시작했다.

김 지부장의 손을 거친 신진 작가만 해도 성남지역 작가 100여명, 경기지역 작가 3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지부장은 성남을 문학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문학협회 지부장들을 성남으로 모여들게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성남은 전국 문학계에서 ‘성남이 곧 중앙’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성공비즈니스와 함께 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성남상공회의소

<http://www.sncci.net>



회원서비스사업

원산지 증명발급 업무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
병역특례업체 지정 업무
무료 구인구직사이트 운영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국제협력사업

해외무역 정보제공/상거래 알선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시장개척단파견·참가지원
외국투자유치단 설명회
해외상의 자매결연 추진

상공진흥사업

성남상공대상 시상식 거행
기업디자인 주치의제 운영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
한양대-성남상의 CEO과정 운영
경제발전 심포지움 개최

사무관리검정업무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외)
상설검정장운영

조사연구건의사업

성남지역 경제동향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조사
중소기업 자금지원 설문조사
분기별 기업경기전망조사
유통업 애로요인조사



“우리는 삼형제”, 광주권 문화 복원에 ‘구슬땀’

광주·성남·하남문화원 ‘광주문화권협의회’ 결성
순국선열추모제, 산성논지 등 공동사업 추진

우리 고유의 역사나 문화 등을 놓고 지자체간 ‘원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3개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 논쟁을 끌고 있다. 역사 상품화를 통해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지자체들이 동일 문화나 역사에 대해 ‘원조’ 논쟁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감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뿌리에서 갈라 나온 형제”를 외치며 3개 지자체가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광주문화권협의회가 바로 그것. 지난 4월 출범한 광주문화권협의회는 성남 문화원 한춘섭 원장을 주축으로 광주 문화원(이상복 원장), 하남문화원(양인석 원장) 등 총 3개 문화원이 한데 모여 결성, 광주문화권 통합을 이뤘다.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흩어져 있던 삼형제가 다시 뭉친 것”이라면서 “성남시, 하남시는 옛 광주군에 속해 있다

행정구역이 나뉜 것 뿐, 하나의 문화권이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형님같은 공주시와 아우같은 하남시를 직접 찾아가 지역의 뿌리를 찾고 향토 문화를 되살리자는 설득 작업을 펼쳤고 한원장의 제안에 선뜻 응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광주문화권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국선열추모제를 열었다.

순국선열추모제는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도 광주군 출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이어 성남, 광주, 하남의 향토 연구가들을 주축으로 광주문화권협의회는 6개월간의 작업 끝에 광주문화의 역사와 보존을 위한 ‘산성논지’를 펴내 3개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산성논지 창간호에는 ‘공주이씨 삼봉이극중’, ‘동강 여이징’, ‘운계 정보경’, ‘하남시 초이동 진주정씨’ 등에 대한 가

계, 인물연구를 비롯해 ‘병자호란때 비련의 국서’, ‘조선 삼학사’ 등 국내외 학자 논문 8편 등을 수록했다.

또 전통문화 확산과 선조들의 뜻을 되돌아보기 위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삼봉사생대회’를 개최했다.

한 원장은 “병자호란당시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거했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삼학사가 과거 역사 속에 묻혀 시민들로부터 잊혀지고 있다”면서 “삼학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문화권협의회는 삼학사 건립비와 순국선열 의병비를 세울 예정으로 현재 3개 시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원장은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몹소 실행할 때 비로소 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원장은 “삼형제가 힘을 합쳐



광주문화권 복원과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송원주기자

▶▶▶▶ 미니인터뷰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성남 뿌리 찾기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향토유적 발굴 등 성남 문화의 산증인



부와 권력, 명예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남의 뿌리 찾는 일에만 한 평생을 바쳤습니다.”

성남문화원 한춘섭(65)원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성남은 오랜 역사의 뿌리를 가진 고장”이라고 밝혔다.

본래 국문학 전공으로 36년간 교편을 잡았던 한 원장은 20여년 전 “성남은 전통 없는 도시”라는 말에 발끈,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찾아내는 일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한 원장은 낮 동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야간에는 대학 강의를 나가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면서 역사연구에 몰두했다.

한 원장의 숨은 노력 끝에 이 지역 출신 역사적인 인물 7명을 발굴, 강정일당 여류 문사를 비롯해 성남향토유

적 1호부터 7호를 지정했다. 방치돼 있던 문화재들이 자료수집과 학문적 연구, 추모행사 등을 통해 문화재로서 보호 받기 시작했다.

최근 한 원장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광주, 성남, 하남시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문화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에 따라 공주시, 하남시와 함께 광주문화권 협의회를 구성,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광주권 문화 복원에 전력 부구하고 있다.

그는 국문학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난 66년 ‘시조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뷔한 한 원장은 성남의 대표적 시조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원장

은 지난 1984년 시조학회를 처음으로 창립했으며 ‘한국시조 큰 사전’을 만들어 국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시조 문학의 불모지였던 중국 조선족 사회에 시조문학을 보급, 양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 원장은 자비를 털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100일장 개최, 문학상 수상, 시조집 간행 등 시조문학 보급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10여년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연변시조시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한 원장은 “나의 제 1전공은 시조이며 제 2전공은 향토 역사 연구이다”면서 “학자이자 문학을 아는 선비이기 때문에 다른 욕심 버리고 향토 문화와

역사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한춘섭 원장은 단국대 대학원 박사 과정 이수, 지난 66년 시조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뷔했으며 22편의 논문을 비롯해 ‘고시조 해설’, ‘한국시조 큰 사전’ 등 10권의 저서, 3권의 시조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한 원장은 향토문화연구소 창립소장, 성남관천문화회 회장, 성남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장, 성남향토유적보호위원, 성남시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 성남 향토 문화의 산 증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격조 높은 분위기 고품격 正統日式 은수사

“오래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당 최고의 일식명가

은수사는 당신을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초특급 귀빈석

조용하고 아늑한 고품격 비지니스의 명소

정통일식요리 메뉴

감탄을 자아내는 정성 가득한
일식 정통코스 맛보는 미각의 절정

최고를 지향하는 서비스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서비스로 '특별한 맛'의 감동을 더합니다.

손색없는 품격의 점심정식 20,000원



특정식 30,000원 가족특선 55,000

저녁정식 40,000원 사시미 7만~11만원 (자연사시미)

银



司

은수사



예/약/문/의

031)705-4700

※대형주차장 완비

데스크 칼럼

이제는 성남발전 대안 모색할 때

연초부터 성남시청 앞이 시끄럽다. 시청 앞에는 지역민원과 관련한 집회와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본격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나 단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선장없는 항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민선시장을 선출하고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원만히 해 낼때 지방자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재선에 성공해 새롭게 출범한 이대엽 시장호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갈등과 진통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는 느낌이다. 일부에서는 이대엽 시장을 시장이라고 부르기조차 포기하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누구의 책임을 떠나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하고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 소속 열린 우리당 시의원들이 50여일 가까이 시의회 본회의장 농성도 진행했다.

또 시청 정문 앞에는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해법은 보이지 않고 갈등과 진통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1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선거법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바로 현관문이 내려지는 침담한 현실에 성남 시민들은 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외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미 성남시 세수가 2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등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혐오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만큼 진정으로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대엽 시장체제는 시민사회의 화합과 중재를 통한 성남발전이라는 전략적 사고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 너무나 실망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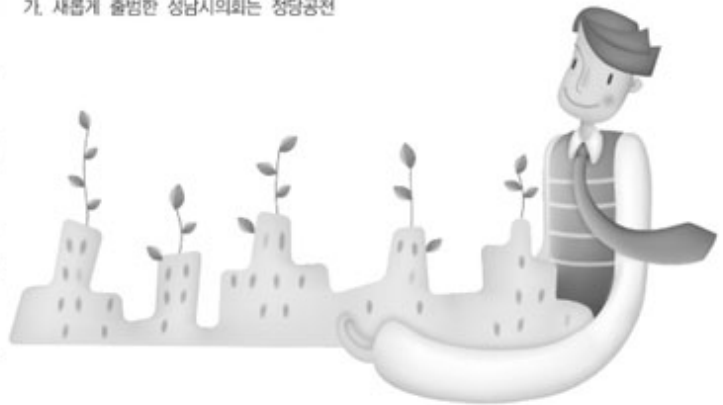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는 어떤가. 새롭게 출범한 성남시의회는 정당공천

이라는 울타리에 얽매어 지역현안에 대해 탄력적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입지와 표 계산에 의해 정치적 행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100만 성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지역사회가 이제부터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다.

벌써 한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불어 오려한다. 새봄에는 성남발전을 염원하는 봄기운이 지역사회에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장 / 모동희



NEWS DAY
www.newsday.or.kr

회장 | 김종균
부회장 | 정희만
발행·편집인 | 김광란
편집장 | 모동희
취재기자 | 오익호, 송현주
등록일 |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다00907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17 영성빌딩 5층
구독·광고신청 문의 | 031721-9922
팩스 |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뉴스데이(newsday.or.kr)는 (주)디지털성남일보가 발행하는 오프라인 신문입니다. 성남·광주지역의 실시간 뉴스는 검색창에서 '성남일보'를 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100만 시민과 늘 함께 합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균형있는 첨단도시, 세계속의 일류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남시
www.cans21.net



“머물고 싶다. 이런 창가”

그녀 마음에 들기위해 디자인도 컬러도 자꾸자꾸 좋아합니다.
머물고 싶은 창이 되어갑니다. 여자의 마음은 특별한 창에만 열리니까요.

* Z:IN HAUT는 LG화학의 최고 품질 브랜드입니다

창에 대한 긴: 생각 Z:IN HAUT



특별한 창 Z:IN HAUT의 발코니 확장 전용창 탄생 이벤트

Z:IN HAUT의 발코니 확장 전용창으로 더 머물고 싶은 창을 만나보세요. (확장용이종형: D240, D260, D270, D290 시스템창: PTT145)
www.z-in.co.kr에서 지인 하우스 광고 이야기 감상하기, 퀴즈풀기 등에 참여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 500만원 상당 인테리어 상품권 외 다수) / 공모기간: 5월 18일 ~ 6월 9일